



Jul-Aug-Sep 2009

NEWS LETTER

Inside this issue...

UNEP FI 2009 Global Roundtable - Registration

UNEP FI 신규 보고서: 기후변화의 중요성 - 금융이 재깍이는 기후 시계에 대처하는 방법

기후변화 성명서: 2009 기후변화 대한 세계적 합의 촉구

UNEP FI Green Paper: 수탁자 책임 - 기관투자자의 ESG이슈 통합 관한 법적·실무적 지침서

Register Now: 용자 및 투자 E&S 리스크 워크샵, ESRO, CEFI, ESRA

Biodiversity - 보고서 및 컨퍼런스

UNEP FI 서명기관 신규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내외 서명기관 활동

"As investors return to the markets,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funds will only go to the brown economy of yesterday— or to a new Green Economy."

-Achim Steiner, UN Under-Secretary-General and UNEP Executive Director

Message from Paul Clements-Hunt, Head of UNEP FI

세계 최대 광고대행사, Cape Town에서 UNEP FI 후원



지난 9월 4일, 세계 최대 광고대행사 Ogilvy/WPP 그룹에 속한 Zoom Advertising은 UNEP FI 및 파트너기관들과 함께 2009 UNEP FI Global Roundtable의 멀티미디어 광고캠페인을 계획·개발·수행하기로 하였다. 본 캠페인은 UNEP FI와 5개 파트너기관이 지난 8월 13일 런칭한 Cape Town Green Week 컨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Zoom과의 논의에서 Roundtable이 기후변화에 있어 케이프타운과 코펜하겐을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덴마크 UN기후변화협약 (UNFCCC)에 아프리카 비즈니스 측면을 투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UNEP FI는 Zoom 광고 팀이 Cape Town Green Week (10월 19-23일) 컨셉에 붙여 넣을 긍정적 에너지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 금번 캠페인은 9월 중순 경 첫 선을 보인 후 10월 첫 주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캠페인의 '엣지있는' 인터넷 요소는 일주일간 지구상에서 가장 푸른 비즈니스도시로 변신할 케이프타운의 Green Week 아이디어에 전염적인 마케팅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Cape Town 뉴스센터

동시에 UNEP FI는 10월 19-23일 한 주를 준비하며 UNEP FI와 Cape Town Green Week 파트너기관들의 진행상황을 보도하기 위한 웹 기반의 독자적 '뉴스센터'를 오픈하였다. UNEP FI 웹사이트에 탑재된 뉴스센터에는 블로그('일기-케이프타운에서 코펜하겐까지') 메뉴도 포함할 예정이다.

Cape Town to Copenhagen NEWS CENTRE

■ Cape Town 뉴스센터: http://www.unepfi.org/news_centre

■ Ogilvy/WPP 그룹의 기후변화 캠페인 website: <http://www.hopenhagen.org>

UNEP FI 2009 Global Roundtable

코펜하겐의 중대한 UN기후변화협약(UNFCCC) 6주 전인 10월 22-2일, UNEP FI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Global Roundtable을 개최한다. 금융·투자 커뮤니티와 정부, 시민사회 글로벌 리더들을 한 자리에 모아 ESG이슈 가운데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계 금융 위기와 코펜하겐을 향한 카운트다운 가운데 UNEP FI green paper ('Financing Global Deal on Climate Change')에 제안된 기후변화대응 자금조달 방안, Fiduciary II 보고서에 언급된 자산 운용, 보험, 연기금의 ESG이슈 통합에 대한 현실 점검, ESRO(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bservatory)를 통해 수집된 실제 사례 중 효과적인 ESG 리스크 식별, 지속가능성이 펀드운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 지속가능금융 리서치와 아이디어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前 미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호국장을 지내는 동안 '녹색혁명'을 설계하고 현 오바마 정부와 중국 정부의 환경자문관을 역임하는 Terry Tamminen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



일 시
장 소
추가정보

- 2009년 10월 22일 - 23일
-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 <http://www.unepfi.org/capetown>
- roundtable@unepfi.org

Why participate?

- ◆ 금융계의 최신 흐름과 세계 그리고 아프리카 금융기관들의 위기대응방안 습득
- ◆ 지속가능성과 재무성과를 연결하는 세계 그리고 아프리카의 최신 리서치
- ◆ 신규 지속가능금융 논의에서 선두적 지위 획득
- ◆ 국내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의 전략적 이슈 집중
- ◆ 은행·투자·보험업에서의 지속가능 업적 소개
- ◆ 은행·투자·보험인 및 업계대표로 이루어진 활발한 글로벌 네트워크에의 접근
- ◆ 맞춤형 교육 워크샵에의 참여



TV 인터뷰: http://www.unepfi.org/imgs/2009_global_roundtable/pch_tv_interview.html
발표자 리스트: <http://www.unepfi.org/events/2009/roundtable/speakers/index.html>
프로그램: <http://www.unepfi.org/events/2009/roundtable/programme/index.html>
온라인 등록: <http://www.soafrika.com/events/UNEP/index.html>

The Materiality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중요성 – 금융이 재각이는 기후시계에 대처하는 방법
How finance copes with the ticking clock

UNEP FI AMWG의 “중요성 시리즈” 그 세 번째 보고서

지난 7월 UNEP FI 자산운용워킹그룹(AMWG)은 호주 시드니의 연례 PRI 행사에서 “중요성(materiality) 시리즈” 중 세 번째 보고서인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소개하였다. AMWG가 2004년부터 발간한 “중요성 시리즈”에는 ‘Equity Pricing에서 ESG이슈의 중요성(2004)’과 ‘Show Me the Money: 기업가치와 ESG이슈 연결하기(2006)’가 있다.



금번 보고서의 주제는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베스트 프랙티스, 위험과 기회의 식별, 기업의 대처방안, 재무성과로의 연결 등 **주요 금융 애널리스트 리서치에 대한 리뷰를 모아서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코펜하겐 정책입안자들이 효과·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왜 금융시장에 필수적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자산운용에서 기후변화를 일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해졌음.** 기후친화적 성장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민간자본투입이 필요. 투자자들은 시장의 힘을 동력화할 단호·명확한 장기적 완화정책을 위해 입안자들과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이러한 기후친화정책은 에너지안보 증진시켜 결국 경제안정의 기초 제공
- ◆ **투자자들은 규제기관의 더 큰 개입을 원함.** 그 예로 투자자 위한 투명성 및 기업정보공시수준 제고, 공공발주 통한 기술지원, 기후압박에 대한 저항성과 친환경기술제고를 위한 일상적인 운영기준의 요구 등이 있음. 실천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진이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음
- ◆ **소수기업이 분명한 변화의 시대에 기업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 자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음.** 녹색물결에 단순히 참여하기보다 고객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의 브랜드우위가 막대할 것임
- ◆ **기업 및 투자자는 선구적 투자자들이 개발한 기후변화 등 질적리스크 평가 틀을 리스크관리 및 기회포착에 활용할 수 있음**
투자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영역:
 - BRICs국가: 기후관련 정보가 빈약함
 - 적응(Adaptation): 탄소비용에 비해 위험·기회에 대한 리서치 부재
 - 공급사슬: 원자재, 운송, 제품 중의 탄소
- ◆ **이러한 이슈에 대한 리서치 및 데이터수집은 투자자 공동의 관심사임.** 분석틀이 있어도 데이터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2009 Investor Statement on a Glob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1/2)

2009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서

금번 성명서는 UNEP FI와 투자계를 대표하는 제후 단체들(IGCC, INCR, IGCC*)의 국제적 협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세계적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투자자 관점을 제시한다. 이미 수 조 달러 AUM에 달하는 기관의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UNEP FI 서명기관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투자계가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포함한 성명서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 IGCC: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 INCR: Investor Network on Climate Risk;
* IGCC: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목표치

1. 글로벌 target:

세계 온실가스 '50까지 50-85%저감 ('00기준)

2. 선진국 target:

'50까지 80-95%저감 ('00기준), '20까지 25-40% 저감 ('90기준)

3. 개발도상국 역할 측정·입증 가능한 국가적

배출저감 action plan 마련

정책의 불확실성 줄이고 저탄소투자 촉진 위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대 배출국들의 구속력 있는 배출저감목표 도입 필요.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위해서는 측정·입증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국가적 action plan이 선행되어야 함.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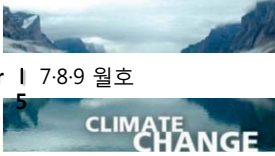
1. 저탄소기술, 에너지효율

민간투자 적은 기술분야 정부지원 글로벌 협약 필요:

- ① 기술적 입증되었으나 보편화 위해 다양 한 공공지원 필요한 핵심기술 (예: 탄소포집, 저장기술 (CCS), 선진 바이오연료, 차세대 태양열발전 등)
- ② 상업화 이전의 초기 단계 청정기술
- ③ 혁신적 기술솔루션의 RD&D

2. 효과적인 글로벌 탄소시장

선호되는 Cap-and-trade 방식의 지속을 위해서 cap이 충분히 낮게 설정되고 배출권 분배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 다른 국가·지역섹터의 거래제도 간 연계를 통해 더욱 확장되고 유동적인 글로벌 탄소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2009 Investor Statement on a Glob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2/2)



관련 정책

3. CDM제도의 확장 및 수정

실질적, 영구적, 입증 가능한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CDM제도의 수정 필요. 지금까지의 복잡한 CDM 관리프로세스가 투자의 흐름을 막아왔음. 이러한 CDM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배출감소 프로젝트의 내용, 규모, 효율성을 보증하는 승인절차를 확장, 강화, 간소화할 필요 있음. 특히 지금까지 민간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한 특정 섹터(예: 에너지효율, 조림/재조림), 지역(예: 아프리카), 규모(예: 소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적 활동) 등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4. 공공금융 메커니즘

개발도상국 투자 위한 민간부문 자금 활용.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확장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자금 활용하는 비탄소시장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 있음. 개발금융기관들이 민간부문의 기후변화완화펀드(예: 대규모 인프라, 부동산, PE, 에너지효율성 펀드 등)의 설립을 허용,지원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음. OECD 정부보증채권은 매력적인 대규모 민간자금조달 수단이지만 일반채권에 상응하는 위험보상수익이 있어야 함.



기타

1. 삼림보호 지원방안

삼림훼손 방지, 조림사업 지원 등 방안 마련이 필요: - 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대한 협약 기대

2.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적응 지원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 더 잘 예측·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협약에 포함해야 함. 기후변화는 물 부족위험 등의 핵심자원 품귀현상, 보험료 상승 등 물리적 영향 가져옴

추가정보: investment@unepfi.org

요약 본: http://www.unepfi.org/fileadmin/documents/MatIII_executive_summary.pdf

Freshfields Report –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1/2)

수탁자 책임 - 기관투자의 ESG이슈 통합에 관한 법적·실무적 지침서

Fiduciary responsibility – Legal and Practical aspects of integrating ESG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

지난 7월 국제로펌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와 UNEP FI 자산관리위원회(AMWG)는 오래 기다려온 'Freshfield Report'의 후속 보고서("Fiduciary II")를 발간하였다. 투자결정에 있어 ESG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문가와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법적 소송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그 주를 이룬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간의 자산운용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기대를 확실히 하기 위해 ESG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수취인, 연기금 수탁자, 자산운용사들이 ESG를 주요한 투자고려사항으로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위임계약 시 연기금이 ESG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투자 컨설턴트나 자산운용사들은 ESG를 이슈화하고 고객인 연기금과 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전문적인 주의의무 (duty of care)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로 소송 당할 실제적인 위험이 크다. 투자자문가, 투자컨설턴트, 자산운용사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서비스'계약 아래에 있다. 즉, 고객의 직원이 아닌 전문적 조언자이므로, 전문가적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반응적(reactive)이기 보다 주도적(proactive) 이어야 한다.”

- Paul Q. Watchman (Freshfield Report의 주 저자)

Freshfields Report – 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2/2)

보고서 주요 내용

- 현재 세계 경제상황에서는 ESG이슈가 모든 기관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고려사항
- 투자컨설턴트와 자산운용사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언할 때 적극적으로 ESG이슈를 언급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대안 고려 시 당연히 ESG이슈를 고려해야. 세계자본시장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함
-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 간의 법적 계약에 자산운용사가 책임지고 정기보고에 ESG이슈를 다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의 성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되고 장기적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야 함
-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SG이슈의 재무적 중요성과 시스템적 위험,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개발이 수반하는 장기비용 및 투자포트폴리오의 장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
- 자산운용사가 재무분석에 ESG이슈를 통합한 견고한 투자전략을 개발, 더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적극 관여하도록 기관투자자들은 점차 압력을 가할 것
- 정책입안자들은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가 그들의 투자프로세스에 ESG이슈를 통합하는데 대한, 그리고 기업들의 ESG이슈 관련성과에 대한 공시및투명성을 높인 건전성규제를 만들어야 함
- 민간부문기관들은 함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보증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투자를 보상하는 시장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의 책임경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금융시스템 과제를 식별하고 "천연자원위기" 등 추가적인 위기를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세계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야 함





Risk Workshop

Evaluation and Mgt of E&S Risks in Lending and Investment Practices

용자 및 투자 E&S 리스크 워크숍

10월 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용자및투자업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다루는 1일 워크숍이 진행된다. 워크숍의 개최목적과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자 및 투자업에서 고객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최신 동향 공유
- 이와 같은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발견, 평가, 완화하는 전략 및 툴 소개
- 필리핀 금융섹터가 환경·사회적 리스크분석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 탐색

1. 소개: 지속가능금융, E&S 리스크 분석
2. 실행 I: 리스크 식별 (그룹별 Case Study)
3. 실행 II: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법론 소개, Case Study 토론)
4. 필리핀 금융섹터 분석

일시	• 10월 27일 (1일)	장소	• 마닐라, 필리핀
비용	• 서명기관 무료		
대상	• 상업 · 기관 · 투자은행의 리스크매니저와 애널리스트 (40명 한정)		

ESRO

Environmental & Social Responsibility Observatory

온라인 사례 연구 데이터베이스 - 실 사례 통한 사업성 증명

*아직도 녹색경제가 적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증거,
환경·사회적 리스크관리가 돈이 된다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다가오는 10월 UNEP FI의 Cape Town Roundtable에서 공식런칭되는 ESRO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통적 가이드라인과 틀들에 빠져있는 실제사례를 통해 재무적 의사결정을 돕는다.

ESRO는 UNEP FI와 Ecobanking 프로젝트가 협력하여 만든 새로운 온라인 DB로써,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금융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연계하는지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회사와 프로젝트개발자들이 겪는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완화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 Web Site: <http://www.unepfi.org/tools/observatory/index.html>
- E-mail: observatory@unepfi.org





CEFI

E-Learning Program: "Corporate Eco-Efficiency for Financial Institutions"

온라인 교육 - 기업의 내부 환경효율성 제고방안

종이, 물, 에너지 절약노력, 5년간 1.5백만 유로 절감
환경효율적 프린팅 도입, 3년간 15백만 달러 절감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세요!



금융기관 대상의 기업 환경효율성(CEFI)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매일매일 사내 활동에 쓰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5개 영역인 물, 에너지, 교통, 빌딩, 생산망을 다루며 케이스 스터디, 토론, 과제제출을 통해 각 기관에 맞추어 수립한 실제 방안과 수행결과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 | | |
|------------|---|
| 일 시 | • 10월 5일 - 30일 (4주) 평균 2시간/일 (각자 스케줄대로 학습) |
| 비 용 | • 500 USD * 신규 런칭 특별가격, UNEP FI 서명기관 할인 혜택 |
| 대 상 | • 금융기관의 운영 · 조달부문 중간레벨 이상 담당자 (20명 정원) |

- 현재 스페인어 강의만 개설
- 추가정보: encytraining@unepfi.org

ESRA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온라인 교육 - 지속가능금융 환경·사회적 리스크분석

오염된 땅... 멸종위기의 생물... 수자원 부족... 건강과 안전위험...
산재한 위험과 큰 잠재적 손실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을 다루는 상업 · 기관 · 투자 · 리테일 बैं킹의 리스크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위해 설계된 본 이리닝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사회적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 ESRA 교육은 UNEP FI,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InWent)와 INCAE 비즈니스스쿨이 개발하여 Ecobanking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으며 2006년 출시 이후 20 번에 걸쳐 제공되었다.



- | | |
|------------|---|
| 일 시 | • 11월 9일 - 27일 (3주) 평균 2시간/일 (각자 스케줄대로 학습) |
| 비 용 | • 750 USD * UNEP FI 서명기관 등 파트너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 |
| 대 상 | • 개발도상국, 신흥시장 다루는 리스크매니저 및 애널리스트 |

- 등록방법: 과정 시작 1주 전까지 온라인 form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프로그램: http://www.unepfi.org/fileadmin/training/esra_programme.pdf

Launch of the Forest Footprint Disclosure

연간공시 통해 투명성 제고하여
삼림파괴 대한 양질 정보 제공



지난 6월 영국정부의 국제개발부(DFID) 본부에서 처음 런칭된 **삼림발자국공시 프로젝트(Forest Footprint Disclosure Project; FDD)**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로 **기업의 사업활동과 공급망이 삼림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삼림발자국'이 기업가치에 잠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다.

지난 7월 218개 대기업에 의뢰한 삼림에 미치는 공급망의 영향에 대한 응답을 이제 받게 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투자상대에게 ESG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제 3 책임투자원칙을 갖는 UN PRI 서명기관에게 삼림파괴의 환경·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총 AUM이 \$2.8조에 달하는 25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UNEP FI의 지원에 힘입어 더 많은 자산운용사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Web Site:
<http://www.forestdisclosure.com>

Conference on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의
투자촉진



- 일시: 2009년 11월 11-12일
- 장소: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Nyenrode 경영대학,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럽 자연보존 센터(ECNC) 주최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의 투자 촉진 (Boosting investments 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향후 이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행동방안 등 혁신적인 투자기회가 소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본 컨퍼런스에서 브레인스토밍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딜레마와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논의한다. 또한 참가기업이 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윤곽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추가정보:
biodiversityfinance@nyenrode.nl

Four New UNEP FI Signatory Sustainability Reports

UNEP FI 4개 서명기관의 신규 지속가능성 보고서



RBS Sustainability Report 2008

The Royal Bank of Scotland 지속가능성 보고서 (G3 GRI가이드라인). ABN AMRO 인수 후, 50개국 174,000여명 직원 보유

<http://www.rbs.com/microsites/sustainability-report-2008/default.htm>



The 2008 Achme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 Doing it

네덜란드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G3 GRI가이드라인). Rabobank와 Achmea 조합이 최대주주로 있으며 유럽 13개국에서 활동하는 보험회사 Eureko의 네덜란드 지역브랜드로 직원 19,800여명 보유

<http://eureko.net/documents/Doing%20it,%20CSR%20Report%202008.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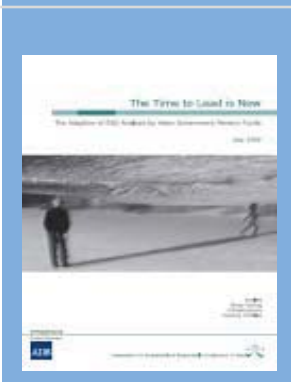


State Stree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08

미 기관투자자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State Street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자금수탁, 퇴직연금, 트레이딩 서비스, 리서치 등 제공. 3년 연속 DJSI 세계 및 북미지수 포함.

27개국 28,000여명 직원 보유.

<http://www.statestreet.com/csr>



ASrIA, The time to Lead is Now: The Adoption of ESG Analysis by Asian Government Pension Funds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한 투자 민간 비영리 협회 ASrIA (Association for Sustainable & Responsible Investment in Asia)의 보고서. 아시아 연기금 ESG 이슈 도입현황, 펀드매니저 위한 ESG 툴 등 공개

http://www.asria.org/publications/lib/ASrIA_The%20Time%20to%20Lead%20is%20Now.pdf

New Signatories



◆ Caledonia Wealth, Management, Ltd. (콜로라도, 미국)

- ESG이슈 통합의 지속가능 투자분야를 이끄는 부띠끄 자산운용사
- 개인, 자영업자, NGO, 자선기금 등 고객 대상
- 보험 · 세금 · 퇴직연금 · 유산 계획 및 액티브펀드 투자솔루션 제공

<http://www.caledoniawealth.com>



◆ Members Equity Group (호주)

- Members Equity Bank, Industry Funds Mgt. (IFM), Industry Funds Services (IFS)의 3개 조직으로 이루어진 금융그룹
- 본사 호주, 런던지사, 뉴욕지사
- 직원 1,000여 명

<http://www.membersequity.com.au>



CommonwealthBank

- 호주 최대 은행 (고객기준)
- Morgan Stanley Capital Global 지수 편입
- 직원 38,000 명

<http://www.commbank.com.au>

Signatory Activities



VicSuper

VicSuper, ACCA Sustainability Reporting 대상 수상

지난 8월 6일, VicSuper는 호주 공인회계사협회(ACCA)의 '지속가능성보고서(SR) 대상'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SME 보고서, 금융서비스분야 보고서 3개 부문 대상을 차지하였다.

시상식은 환경, 사회, 지속가능금융리포팅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77개 조직이 지원하였다.

국내 서명기관 관련 활동

KB  국민은행

- **기업 신용등급 '친환경 경영' 반영 (9/30)**
 - 9개 부문 23개 항목을 평가
 -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5단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신용등급 상향 또는 하향
- **그린 그로스 온라인 예금 한시 판매 (9/14)**
 - 29일까지 가입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
 - 판매가 많을수록 높은 이율 적용.
 - 기존 온라인 전용 예금보다 연 1.0%포인트 높은 최저 연 4.2% 보장. 만기 이자의 1%는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

DGB  대구은행

- **'친환경녹색 예·적금' 판매 (7/21)**
 - 친환경 녹색예금 가입 금액 300만원 이상, 친환경 녹색적금 월 적립금 10만원 이상
 - 친환경 활동에 따라 우대금리 지급

 신한은행

- **'신한 아이사랑 보험 그린' 출시 (9/30)**
 - 어린이 종합 보험에 친환경 개념을 더함
 - 업계 최초로 치과 통원비 보장 및 판매액 1% 환경사업에 기부

 우리은행

- **'우리사랑 녹색기업 대출' 출시 (9/28)**
 - 녹색기술 기업에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우대 등 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 **시중은행 최초 자전거정기예금 판매 (7/31)**
 - 자전거 상해보험 무료가입.
 - 판매수익금 10% 녹색성장 관련사업에 기부 및 추첨으로 자전거 지급
 - 가입금액 최저 3백만 원, 가입기간 1년, 기본 금리 3.7% (최고 4.0%)
- **'그린IT산업 특화대출상품' (7/21)**
 - 전자태그(RFID),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USN)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RFID-USN 론'을 판매
 - 시설자금대출은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10% 확대해 최고 85%까지 적용

한국수출입은행

● 1천억 규모의 탄소펀드 출범 (9/29)

-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거래 펀드.
- 국내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투자 계약서에 서명,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
- 파키스탄에 추진중인 수력발전 CDM사업에서 총 45만톤, 80억원의 탄소배출권 사기로.

● “중국 녹색전략 진출 방안” 발간 (7/13)

- 중국의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탄소배출권확보사업(CDM사업) 지원 정책 및 전략 소개

현대해상

● 하이라이프하이콜ECO보험 출시(9/03)

-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선택한 계약자에게는 초회 납입보험료의 9% 할인
- 자전거를 이용(자전거 관련 특약 가입자)하거나 자동차 10년 무사고 운전자인 에코 드라이버는 초년도 보험료 1% 할인.
- 그 외 다양한 50여 종 담보를 구비, 다양한 교통수단과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

삼성투신운용

● 글로벌 녹색성장 펀드 출시(7/21)

- 녹색자문 위원회(삼성투신운용,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지구환경 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의 실무진)에서 검토,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 벤치마크는 MSCI AC World와 KOSPI, 콜금리를 편입비중에 따라 조합한 인덱스활용, 해외녹색성장 기업에 70%가량을 투자

국내 금융기관 동향

미래에셋

● 2009 녹색경영 대상 수상 (9/30)

- '미래에셋녹색성장펀드'가 '2009년 글로벌 녹색 경영대상'에서 서비스부분 대상을 수상

부산은행

● 첫 탄소배출권 연동예금 출시 (8/07)

- 탄소배출권 가격 따라 최고 연 30%(세전) 이자 지급하는 부은지수연동정기예금 69차
- 은행 중 최초로 ECX 탄소배출권(EUA) 선물가격 연동, 원금보장형



● 녹색성장예금 판매 1조 돌파 (8/31)

- 4월 출시한 녹색성장예금 판매고 1조원 돌파
- 환경관련 상품 중 판매고 1조원 돌파는 '07 출시 `환경사랑통장`(1.3조원) 이후 녹색성장 예금이 두 번째

해외 소식 및 동향



● 유럽 각국 탄소배출권 거래 사기 비상 (8/20)

- 영국 국세청(HMRC): 런던에서 6천300만 달러의 세금 포탈 혐의 일당 7명 체포. 부가가치세(VAT)가 붙지 않는 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들인 뒤 다른 나라 기업들에 VAT가 포함된 가격에 배출권 되파는 방식.
- 영국 지난달 사기 막는 법 채택, EU에도 금지규정을 도입하자고 촉구.

국내 소식 및 동향



● 특허청, '초고속심사제도' 시행 (9/30)

-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 신속한 사업화 가능.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일반 심사는 18개월, 우선심사가 3개월 소요. 초고속심사는 출원 후 권리 획득까지 1개월 이내로 전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

● 탄소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범실시 (8/26)

- 환경부, 한국거래소(KRX)에서 실제 탄소배출권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내년 1월부터 실시.
-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 산업계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축량 강제 할당,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
- 실제 탄소시장 출범까지는 준비 기간만 3~5년이 걸림.

● UNEP FI Korea Group 사무국 소식

- 2009 겨울 인턴: 유혜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

